

속터지는 KIA 타선 해결사를 찾아라



▲나지완
▼이범호



나지완 2할 타율·3타점 부진
 기회마다 무기력... 득점 불발
 주중 롯데·주말 두산과 3연전
 홈 3연패 탈출·4번 자리 '속제'



‘호랑이 군단’의 리
 허설은 끝났다. 승부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KIA에게는 치욕적
 인 주말이었다. LG 원

정에서 1승1패를 거둔 KIA는 주말 안방에서 넥센에
 게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강정호의 해외 진출에 서건창, 이택근의 부상으로
 근심을 안고 광주를 찾았던 넥센이었다. 넥센 영경엽
 감독이 “계속 비가 오면 좋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전력 누수가 많았던 상대였지만 경기는 KIA의 3전
 전패로 끝났다.

17일 험비가 6이닝 1실점 호투에도 불행 난조와 중
 심타선의 침묵으로 승리를 날렸다. 18일에는 타선의
 휴업 속에 필 홀로 뛰었다. 19일에는 루키 문경찬이
 조기 강판당하는 등 마운드가 초토화되면서 홈 6연
 패가 됐다. 김기태 감독의 믿음의 결과가 패배로 돌
 아오면서 타격이 더 컸던 한주였다.

멀리 보고 중용한 임기준·문경찬 두 영건의 선발
 경기가 내상을 남겼다. 16일 임기준은 첫 상대 오지
 환을 불넷으로 내보내는 등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하
 지 못하며 3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마
 운드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막혔다. NC에
 못매를 맞으면서 6이닝 11실점을 했던 임기준은 LG
 전 부진까지 겹치면서 2군에서 재정비를 하게 됐다.

문경찬에게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임준혁의 부상
 으로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문경찬은 kt전 깜짝
 호투로 주목받았지만 삼성과 넥센의 강타선 앞에서
 주저앉았다. 삼성 최형우에게 멀티 홈런을 허용했던
 문경찬은 넥센 고종욱에게 한방을 내줬다. 불넷으로
 나선 LG전까지 타하던 41이닝 4피홈런이다.

4번 타자도 믿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나지완의
 타율은 0.206, 장타율은 0.286, 타점은 3점에 불과하
 다. 기회마다 4번 타자가 무기력하게 벤치로 돌아가
 면서 쉽게 경기를 내줬다.

보이지 않는 실책까지 이어지면서 공·수에서 블랙
 홀이 더해졌다. 6번 이범호까지 영성환 타격으로 자
 존심을 구기면서 중심타선은 몰타선이 됐다.

상·하위 타선이 악작같은 승부로 분전하고 있지만
 중심타선의 부진 속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18일 필을 4번에 넣고 부진한 중심
 타수를 한 단계 아래로 내려 배치했다. 하지만 이날
 도 나지완-최희섭-이범호는 16타석 무안타로 경기
 를 끝냈다. 그나마 최희섭이 19일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멀티히트로 숨을 골랐지만 나지완의 부진은 기약
 이 없다.

시즌 초반이라고 여유를 부리기에겐 초반 기싸움
 이 치열하다. 변화의 바람 없이는 반전도 어려운 상
 황이다. 마운드의 변화는 준비되고 있다. 김기태 감
 독은 지난 19일 “한승혁이 선발로 갈지 뒤로 갈지를
 코치진과 의논할 생각이다. 서재응은 곧 올라올 것이
 다”고 언급했다.

1군 첫 등판에서 2.2이닝 6K를 선보인 한승혁과 2
 군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끝낸 서재응이 경험과 파워
 가 부족한 임기준과 문경찬을 대신해 선발전에 합류
 할 전망이다.

남은 고민은 중심타선, 특히 4번 타자다. KIA는
 주중 롯데와 홈경기를 치른 뒤 주말 잠실로 가 두산
 과 원정 3연전을 갖는다. 홈 연패 탈출이라는 속제를
 풀어야 하고, 2위 두산의 화력과 상대해야 한다. 위기
 탈출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필



강정호 첫 득점

밀워키전 6회 대주자 출전...첫 불넷도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첫 득점에 첫 불넷까지 얻어냈다.

강정호는 2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
 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6회말 대주
 자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6회말 무사 1루에서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가 밀워키 선
 발 맷 가르자의 공에 몸에 맞는 볼로 부상을 당하자 피츠버
 그 벤치는 강정호를 대주자로 1루에 보냈다.

머서를 대신해 대주자로 출장 기회를 잡은 강정호는 폭
 투를 틈타 2루에 진투한 데 이어 크리스 슈투어트의 좌전
 적시타 때 홈까지 밟으며 메이저리그 데뷔 첫 득점을 올렸
 다.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는 밀워키의 세 번
 째 투수 마이클 블레이크를 상대로 데뷔 첫 불넷까지 얻어
 출루했다. 강정호는 무리하지 않고 볼 네 개를 연달아 골라
 내며 스트레이트 불넷으로 1루를 밟았다. 강정호는 이후 스
 튜어트의 유격수 땅볼 때 2루에서 포스 아웃당하며 추가 진
 루에는 실패했다.

한편 피츠버그는 5-2로 승리하며 밀워키와의 3연전을 모
 두 쓸어 담았다.

류 “오직 연습”

“통증 없지만 복귀시점 미지수”

왼쪽 어깨 통증이 재발한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
 스)은 19일(현지시간) “캐치볼 연습을 할 때 어깨에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
 르겠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이날 LA 다저스를 취재하는 트루블루LA닷컴
 (TrueBlueLA.com)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컨디션으로 볼
 때 불펜 투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현진은 이어 “지금은 필드 밖에서 캐치볼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등판 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코치
 진들이)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류현진이 사흘째 캐치볼 강도를 높이고 있지
 만, 캐치볼 거리는 90피트(약 27.4m)를 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현진의 다저스 로스터 합류 시기는 여
 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는 류현진의 복귀 시점을 5월 말로 보고 있
 는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5월 말 복귀’ 전망도 희망사항일 뿐 구체적인 복귀시점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젖은 비, 프로야구 흥행 ‘찬물’

경기당 평균 1만144명...전년비 12% 감소

사상 첫 ‘836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힘차게 출발한 올 시즌
 프로야구에 꺾은 날씨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20일 KBO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막한 올 시즌 프로야구
 는 19일까지 열린 8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1만144명(84만
 1964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다.

같은 경기 수를 기준으로 하면 651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지난
 해의 경기당 1만1530명(95만 6965명)에 비해 약 12% 감소했다.
 프로야구는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리그 초반 많은 관

중을 동원하고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더군다나 팀 대부분이 4월 초반 싸움에 집중하면서 어느 때
 보다 흥미진진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지만, 경기당 관중 수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관중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꺾은 날씨가 꼽힌다.

개막 이후 약전후로 취소된 경기만 해도 17경기에 이른다.
 열린 경기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번덕스러운 날씨 탓에 팬들의
 야구장행 발걸음은 망설이게 했다.

특히 관중이 몰리는 일요일인 19일에 5경기 가운데 한 경기
 만 빼고 모두 취소된 것이 관중 감소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그 전날 잠실구장이 만원 관중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구름
 관중이 몰려든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욱 컸다.

KBO는 시즌 개막 전 올 시즌 목표 관중 수를 836만 2000명
 (경기당 평균 1만 1614명)으로 발표했다. 2012년 기록한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수 715만 6157명을 넘어 관중 동원 신기록을
 꿈꿨으나 이러한 흥행 신기록 도전에 날씨가 최대 변수로 떠올
 랐다. 다행히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특별한 비 예보는 없다.

그러나 5월 중순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관중
 감소에 따른 야구계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